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사회윤리에 관한 연구

김명배(서울장신대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의 정의와 그 구성

1.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의 정의
2. 보수진영의 구성

III.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의 역사·신학적 배경

1. 근본주의 신학
2. 반공주의

IV.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정교분리론

V.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윤리

1. 루터의 두왕국론과 그 윤리적 원칙
2. 두왕국론의 윤리적 오용의 위험성과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답습

VI. 나가는 말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tudy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Conservative Group in Korean Protestant Church from 1960 to 1987. Because of the lack of political theology, Korean Protestant Church shows the theological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also act the diverse practices in the social participation. In this period, On the one hand Progressive Group devoted to democratization and human dignity Movements, On the other hand Conservative Group devoted to evangelization, asserting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This opposition between Progressive Group and Conservative Group basically originated from the differences of perspective on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This dissertation primarily aims at a study about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Conservative Group in Korea Protestant Church. Therefore, this dissertation is historically to study the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Protestant Church, and then theologically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n Korean Protestant Church. Conservative Group negatively saw the social participation of christian, asserting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The Korean Presidential breakfast Prayer Meeting is representative to the social participation of a fundamental and conservative Group during these days.

According to my study,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of the fundamental and conservative Group is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founded by the fundamentalism and Anti-Communsim that made in the theological and historical situation of Korea since the 1945. And also, Hulmut Thielicke asserted that Luther's two kingdoms has misuses of dual ethics, a dangerousness of secularization, and a tendency of obedience to an authority of government. According to my study, Conservative Group of Korea Protestant Church has misuses of Luther's two kingdoms

Keywords: Conservative Group. Chuch and State. Social Participation. Two Kingdoms. Anti-Communism. Fundamentalism.

I. 들어가는 말

1970년대부터 교회사 연구자들에 의해 『기독교 사상』이나 『신학사상』 등에 제한적으로 실리기 시작한 ‘기독교민족운동’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에 들어서 교회사나 한국사 영역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민족운동’에 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해방이전 즉, 일제시기에 국한 되었다.¹⁾ 결국 해방이후 기독교사회참여 운동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연구를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주제들에 집중되어 왔다.²⁾

첫째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기독교 사회참여의 외적 배경으로 개발독제가 낳은 노동소외와 유신 체제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 내적 근거로는 에큐메니칼 사회참여신학인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세속화신학’, 그리고 ‘토착화 신학’ 등 자유주의 신학의 수용을 들고 있다. 또한 ‘민중의 고난 받는 현실과 그것의 극복을 위한 투쟁’에 메시아적 의미가 내재해 있다는 민중신학은 교회의 사회참여운동에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기독교사회참여운동의 주도세력의 현실 인식과 지향도에 관한 연구이다. 즉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했는가?하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1) 한규무, “한국기독교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12호(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76면.

2) 기독교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사는 조배원의 <기독교사회참여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사회참여운동관련문헌해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9-14면에서 요약하였다.

세력은 민주화 이전의 한국사회를 민주적 절차나 제도를 결여한 독재체제로 파악했고, 국민의 참정권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한다.

세 번째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에서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언제 대두되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대체로 사회참여의 계기로 1970년대 전태일 분신자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충격과 곧 이어 이루어진 유신개헌을 꼽고 있다. 한편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하는 연구문헌들은 시기와 계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4.19혁명, 한·일협정비준반대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등을 교회가 반독재·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로 꼽고 있다.

넷째로 기독교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주체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을 포함한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이 교회 내 진보적 지식인, 성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 스스로가 운동의 주체를 ‘유기적 지식인’으로 정의해 제기했고, 가톨릭의 경우에는 사제단과 평신도 내 소수 진보세력이 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독교사회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다분히 한국개신교회 가운데 진보진영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그동안 교회의 사회참여를 진보진영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만 국한 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교정이 필요하다.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진영도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차원에서 활발한 사회참여를 시도하여 왔다. 특히 보수진영은 국가조찬기도회와 같은 친정부적 행사를 통하여 군사독재정권과 협력하는 모습으로 사회에 참여하였다. 양진영의 이러한 대립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해방이후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와 사회윤리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차이와 정치신학의 부재로 사회참여에 있어서 전혀 상반된 실천을 보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그 사회윤리를 신학적으로 규명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이것은 그동안 진보진영의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데 반하여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의 정의와 그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전개된 한국개신교 보수진영의 사회참여 방식과 그 구성단체와 인물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그 사회윤리를 신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기독교 윤리를 세계교회사 전통, 특히 16세기 루터의 ‘두 왕국론’과 이 ‘두왕국론과 관련된 기독교 윤리’와 비교하여 분석하고 그 상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동시에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참여와 그 방식이 세계교회사 전통과 신학 속에 어떠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과 특수성(상황성)’을 파악하려는 시도이기도 한다.

II.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의 정의와 그 구성

1.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의 정의

보수진영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 ‘국가조찬기도회’와 같은 국가주도의 행사에 참가하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

의 ‘친정부적 사회참여’ 방식을 추구하였다. 원래 정교분리론은 일제시대 선교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다.³⁾ 그러나 정교분리론은 해방 후에 근본주의적 신학입장을 가지고 있던 한국교회의 보수적 교회와 그 지도자들에 의해 그대로 수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보다 더욱더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왜곡의 현상이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도 ‘국가조찬기도회’와 같이 권력자들이 요청하는 자리에는 응하는 ‘친정부적 태도’이다. 해방 후에 일부 개신교회의 지도자들은 개신교인이었던 이승만 정권에 친정부적 태도를 보였고,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도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여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또한 보수진영의 사회참여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참여를 ‘용공’, ‘좌경’으로 비난하며 각종 <성명서>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단체와 교회, 그리고 교계지도자들의 사회참여 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60년대에는 에큐메니칼 진영을 ‘용공’으로 몰아 비난하였고, 7, 80년대에도 에큐메니칼형 진영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용공’으로 몰아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⁴⁾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 보

3) 양현해, <한경직 목사의 신앙적 유산과 그 현대적 의의>, 『제10회 한경직 목사 기념강좌』, 미간행논문, (서울: 숭실대학교, 2006), 43면.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I)』,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81면. 대한기독교연합회(DCC)소속의 조용기, 김준곤, 김장환 등은 김계준을 “성도들의 양심을 혼란시키는 선동자”라 비난하고, “정교분리,” “양심의 자유”를 표방하며 종교는 개헌문제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II)』, 509-10면.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한국보수교단협의회’는 민주화운동세력을 ‘용공’으로 비난하였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87년 교회사정』, 17면. 한편 국제기독교연합회(ICCC)의 맥킨 타이어와 관계를 가지면서 1974년 WCC를 용공단체라 비난하고 이들이 사회참여를 빙자한 정치참여를 하고 있다 비판하였다. 이들은 1974년 11월 25일 <기독교 반공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여 1. 반정부적 선전 및 테모선동은 비성경적이다. 2.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모는 행동은 오직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성경은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2) 성경은 다스리는 자들에 복종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등 무조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진영의 사회참여는 정교분리를 주장하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가하고, 에큐메니칼 진영의 사회참여를 ‘용공’으로 비판하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회참여 방식을 말한다.

2. 보수진영의 구성

보수진영의 사회참여 유형으로 분류되는 단체로는 KNCC와 구별되는 보수적 교회연합단체들이다. 그 대표적인 단체로는 60년대와 70년대에 대한기독교연합회(DCC), 한국예수교협의회(KCCC)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단체 가운데 한국예수교협의회는 직간접적으로 매킨타이어의 반 WCC노선에 영향을 받아 WCC를 ‘용공’으로 비난하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정교분리론을 주장하였다. 한편 80년대 대표적인 친정부형 사회참여 단체로는 한국기독교교역자협의회, 개신교단협의회와 한국교회수호범교단대책협의회를 들 수 있다. 이들 단체들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중심한 과격한 사회참여를 반대하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결과적으로 친정부적 성격을 띠었다. 초교파선교단체로는 김준곤 목사가 이끄는 대학생선교회(CCC)를 들 수 있다. 대학생선교회(CCC)는 민족복음화 운동에 헌신하였으나, 이 운동이 정치권력에 비호아래 진행되었다는 비판과 김준곤 목사의 친정부적 성향으로 보수진영의 사회참여 유형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정교분리론을 주장했던 교계지도자들은 한국개신교회의 전 교단을 망라한다. 60년대에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서 교회의 정치간섭을 반대했던 예정(통합)의 김석찬 목사, 박치순 목사, 김동협 목사 등을 우선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교회가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반대운동을 전개할 때 이를 지지한 대한기독교연합회(DCC)소속의 김윤찬, 박형룡, 조용

것을 가르치고, 간헐자를 위해서는 기도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하였다.

기, 김준곤, 김장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68년에 결성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개신교회의 지도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장측과 예장(통합)측을 포함한 개신교회의 거의 모든 교단의 인사들이 망라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인사들은 국가조찬기도회를 주도적으로 만든 CCC의 김준곤 목사, 예장(통합)측의 한경직, 강신명, 기장측에도 조항록 목사 등이 참석하였다.⁵⁾ 80년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루어진 국가조찬기도회에 개신교단의 주요한 중진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기도 하였다.⁶⁾ 이처럼 80년대까지 국가조찬기도회형의 사회참여는 신학적으로 보수적 입장을 취하던 일부 교계 중진 인사들, 그리고 KNCC 가맹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참석하는 형태를 띠기도 하였다.

5) 예장(통합)의 한경직, 강신명, 기장의 조항록 목사는 60년대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1968년 국가조찬기도회가 발족된 이후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 특히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구성된 ‘입법회의’에는 개신교계를 대표하여 예장(통합)의 강신명 목사, 기장의 조항록 목사가 참여하였다. 이처럼 이들 목회자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양현혜는 ‘반공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경직 목사의 경우 그가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시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는 사회 불안을 경계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경직은 유신헌법에 반대서명에 참여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도 그 운동이 사회불안을 가중 시킬 것이라는 점을 염려해 결국 참여하지 않은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정진영, 『한경직 목사와 선교』, 24. 한경직에게 나타나는 이와 같은 사회윤리의 부재는 비단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개신교회의 공동된 하나의 특징이었다는 것이다. 양현혜, <한경직 목사의 신앙적 유산과 그 현대적 의의>, 『제10회 한경직 목사 기념강좌』, 41면을 참조하라.

6) 한경직, 조항록, 김치길, 정진경, 강신명, 박치순, 김윤식, 신현균, 장성철, 김준곤, 조석현, 이경재, 최태섭, 김해득, 민영완, 이봉상, 지원상, 유홍묵, 김창인, 박정근, 김용도, 유호준, 이상로, 박선희, 임옥 등이 참석하였다.

III.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의 역사·신학적 배경

1. 근본주의 신학

근본주의 운동은 1929년 미국에서 프린스턴신학교를 떠나 웨스터민스터(Westminster) 신학교를 만든 메이첸(G. Machen)과 밴틸(Van Til)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칼 바르트(K. Barth)를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신신학자로 매도하고, 자신들이 신봉했던 근본주의 신학을 정통신학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20C개혁신학자들 가운데 매우 편협하고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자들로 20C의 개혁신학의 본류라기 보다는 지류에 해당하였다.⁷⁾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20C의 개혁신학의 지류가 한국에서는 박형룡에 의해 본류로 바뀌게 된다. 그는 근본주의 신학이야말로 정통과 기독교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정통주의요 정통과 기독교다. 한결을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신앙과 동일한 것이니만치 이것은 곧 기독교 자체라고 단언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정의 일 것이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다.…… 이렇므로 나는 근본주의야말로 유일한 기독교 자체라고 정의한 것이다.⁸⁾

박형룡은 신학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화, 변천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시대로부터 전승해 내려오는 ‘사도적 정통의 정신학’을 그대로 보수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성서는 ‘성서무오설’을 확신하였

7) 김명룡,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171면.

8) 박형룡, 『朴亨龍博士著作全集』 VIII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78), 280-81면. 그리고 『신학지남』 제 25권 제 1호 (서울: 신학 지남사, 1960. 9)

으며,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책으로 일점일획도 틀림없다는 ‘축자염감설’을 굳게 믿었다.⁹⁾ 박형룡의 신학적 영향력이 한국 장로교회 내에서 증대되면서 근본주의 성향의 신학이 정통 개혁신학으로 한국교회 내에서 인식되게 되었다.¹⁰⁾

그런데 이 근본주의 신학은 분리주의, 반지성주의, 종말론의 강조, 반사회적인 움직임, 정교분리 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메이첸은 그의 저서 『기독교와 자유주의』(Christianity and Liberalism)에서 근본주의 신학의 반사회적 성격을 주장하였고,¹¹⁾ 이에 영향을 받은 박형룡은 “사회복음”(Social Gospel)은 피상적(皮相的)이고 근시적(近視的)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종교적 욕구는 영원과 절대를 동경(憧憬)하는 것이며,” “실증적 세계, 즉 단순한 지상연극은 가치가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¹²⁾ 뿐만 아니라 박형룡은 <조선교계 사상의 추세>에서 “그리스도교의 사회화 뿐 아니라 소위 조선화, 민족화를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¹³⁾ 이러한 근본주의 신학의 반사회적 움직임은 한국 개신교회 보수진영으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의 결여로 나타나게 하였다.¹⁴⁾

2. 반공주의

해방 후 김일성 세력에게 감시와 탄압을 받던 이북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하하게 되자, 기독교는 반공의 종교 공동체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9)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사』(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4), 263면.

10) 김명룡, 앞의 책, 171-72.

11) G.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156. 박형룡, 『朴亨龍博士著作全集』 XIV, 190면에서 재인용.

12) 박형룡, <사회복음의 신학>. 『신학지남』 제 17권 4집, (서울: 신학 지남사, 1935. 7), 그리고 위의 책, 192면.

13) 박형룡, 『朴亨龍博士著作全集』 XIV, 372면.

14) 박용규, 『한국교회를 일깨운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1998) 76면.

특히 한국교회는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인적 피해를 입었다. 예배당의 파괴도 심각했다.¹⁵⁾ 그리하여 한국기독교회는 6. 25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더 철저한 반공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게 되었다. 6.25전쟁으로 북쪽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남으로 피난하였는데 이들이 반공의 맨 앞줄에 서게 되고 반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이승만 정권과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연대하게 되었다.¹⁶⁾ 또한 한국교회는 6.25전쟁을 “악마와 천사와의 대결”로 인식하였고, 공산당 퇴치전쟁은 십자군 전쟁과 비유하였다. 그래서 이승만의 북진통일을 교회가 지지하게 되었으며, 6.25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기독교가 “우익의 탁월한 상징”으로 떠오르게 되었다.¹⁷⁾

한국 개신교 보수신학의 대부 박형룡은 교회에 “붉은 세력”이 침투하고 있다고 세계교회협의회(WCC)를 겨냥하면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자리할 수 없다고 전파하였다.¹⁸⁾ 한경직도 철저한 반공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공산주의야 말로 일대 괴물이요, 이 괴물이 지금은 삼천리 강산에 횡횡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그가 남한 사회의 최대의 죄악이라고 보는 거짓말, 도적질, 테러는 유물론적 공산주의의 반도덕 사상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¹⁹⁾ 한경직이 유신헌법 반대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나, 국가조찬기도회와 같은 친정부적 행사에 참여한 배경에는 이와같은 반공주의의 영향이었다.²⁰⁾

그러므로 반공적인 한국 기독교는 반공을 ‘국시’로 삼은 남한 정부와 친화적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정권, 박정희, 전두환으

15) 김인수, 앞의 책, 263면.

16) 박정신, 『한국 기독교사 인식』(서울: 헤안, 2004), 211-212면.

17) 강인철, 『한국기독교회와 국가·시민사회, 1945-1960』(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996), 270-272면.

18) 박형룡, 『朴亨龍博士著作全集』 제 IX 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87-90면.

19) 한경직 전집 1, 『정치와 기독교』, 86. 『기독교와 공산주의』, 148면.

20) 양현해, 앞의 글, 41면.

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은 반공주의적인 보수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보수적 교회들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적이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정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²¹⁾ 이러한 반공주의 사상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개신교회들로 하여금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친정부적 성향을 띠게 하였다.

IV.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정교분리론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정교분리론이다. 정교분리원칙이 최초로 헌법에 규정된 것은 종교박해를 경험한 청교도들의 후예가 건국한 미국의 헌법에서였다.²²⁾ 미국헌법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의 수정헌법에 규정된 “분리”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종교 간섭과 종교 활동을 금지시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와 세속국가의 유지를 보장해 주는 것을 뜻한다.²³⁾ 그러나 한국 교회 선교초기에 선교사들은 독특한 방식의 ‘정교분리론’을 한국교회에 주입시키려고 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의 활발한 민족운동에의 참여

21) 박정신, 앞의 책, 214면.

22) 나학진, <정교분리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교범서, 『교회와 국가』(서울: 법화사, 1984), 200-201면. 미국헌법 본문에 정교분리가 표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리라는 정신이 수정헌법(admendment) 제1조에 반영되고, 이에 대한 해석이 제 14조에서 확대되면서 정교분리의 정신이 확립되어 간 것이다. 종교와 정치 사이에 있어야 할 ‘분리의 벽’(a wall of separation)이라는 정신을 당시의 대통령인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제 1조에서 암시적으로 반영시킨 것이다.

23) Jams E. Wood, Jr., *Natianhood and the Kingdom*(Nashville, Tennessee: Broadman Press, 1977), p.79.

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들은 1901년에 ‘정부와 교회 사이에 교제할 몇 가지 조건’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 교회에 회람시켰다.²⁴⁾

1. 우리 목사들을 대한 나라 일과 정부 일과 관헌 일에 대하여 모두지 그 일에 간섭 아니하기를 작정한 것이오. 2. 대한민국과 우리 나라들과 서로 약조가 있는 데 그 약조대로 정사를 다 받으되 교회 일과 나라 일은 같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교우를 가르치기를 교회가 나라 일 보는 데가 아니오 또한 나라 일은 간섭할 것이 아니오(중략) 5. 교회는 성신이 붙인 교회요 나라 일 보는 교회 아닌 데 예배당이나 회당 사랑이나 교회 학당이나 교회 일을 위하여 쓸 집이요 나라 일 의논하는 집이 아니오 그 집에서 나라 일 공론하여 모일 성도 아니오 또한 누구든지 교인이 되어서 다른 데서 공론하지 못할 나라 일을 목사의 사랑에서 더욱 못할 것이오.²⁵⁾

이것은 국가권력의 신앙에 대한 불간섭이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교회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이라는 독특한 내용으로 변형시킨 ‘정교분리’의 원칙이 한국 개신교 신자들에게 강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정교분리론’의 특수한 변형으로서 그 내실은 ‘정치 불간섭주의적 교회중심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²⁶⁾

이 ‘정교분리’ 원칙은 해방 후에도 한국 개신교회의 보수적 교회의 교회와 국가관계에 적용되었다. 한국개신교회의 보수계열인 합동측의 신학자인 김의환은 엄격한 ‘정교분리’를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와 국가는 함께 신적인 기관이지만 그 기능과 영역에 있어서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교회는 3.1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영역 이탈의 과오를

24) 양현혜, 같은 글, 42면. 양현혜는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제시된 초기 한국개신교회의 정교분리를 ‘조선형 정교분리’라 명명하였다.

25) 『그리스도 신문』 (1901. 10. 3)

26) 양현혜, 같은 글, 43면.

범했고, 오늘날에는 민권운동 참여에서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²⁷⁾ 그는 『교회와 국가』에서 “교회는 민족주의 운동의 온상도 될 수 없고 민권운동의 참모실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²⁸⁾ 또한 『한국 교회의 정치참여문제』라는 글을 통해 “교회가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만 정부를 향해 발언할 수 있지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행동은 잘못된 것”²⁹⁾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1901년 장로회 선교사들의 공의회에서 결의된 ‘정부와 교회 사이에 교제할 몇 가지 조건’ 즉, ‘정교분리’의 원칙을 다시 한번 재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정교분리론은 선교사들의 사회적 배경과 신앙유형이 결합되어 나타난 “한국교회의 사회론”³⁰⁾으로서 ‘침묵의 신학’(silent theology)이 되었다.³¹⁾

1960년대 한일국교정상화반대운동을 반대했던 김석찬 목사, 박치순 목사, 김동협 목사 등은 이러한 정교분리론에 기초하여 교회의 사회참여를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3선개헌 반대운동과 7,80년대 민주화 인권운동세력의 사회참여에 대한 보수진영의 교계지도자의 비난과 비판은 모두가 이와 같은 ‘정교분리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보수진영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실 엄격한 정교분리를 실천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친정부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미 1969년 3선개헌시에 대한기독교연합회 소속의 김윤찬, 박형룡, 조용기, 김준곤, 김장환 목사는 진보진영의 정치참여가 정교분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면서도, ‘개헌에 대한 우

27) 김홍수, <교회와 국가 관계의 역사적 유형>, 『신학사상』, (1992, 가을), 833면.

28) 김의환, 『교회와 국가』, 7면

29) 김의환,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문제>, 『신학지남』 (서울: 신학지남사, 1973. 3), 25-28면.

30) 노길명, <개회기 및 일제시대 한국 천주교회의 성격과 사회활동>, 『교회와 역사』 (1987, 8), 23면.

31) Jose Comblin, *The Church and the National Security State*(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79), pp.14-17.

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박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한다”는 지지 의사를 표명한 사실에서 이같은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이들은 진보진영의 사회참여를 비판하는 각종 <성명서>를 발표하여 친정부적 성향을 드러냄은 물론, ‘국가조찬기도회’와 같은 ‘친정부적’ 행사를 만들어 정권에 협조하였다. 1965년 김준곤 목사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가조찬기도회’는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친정부적 사회참여로 70년대를 유신체제를 거쳐 80년대 제5공화국 군사독재시절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사회참여는 신학적으로 ‘정교분리’ 또는 정교분리의 변형인 ‘조선형 정교분리’라 정의하고자 한다.

V. 보수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기독교 사회윤리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친정부적 사회참여에 나타난 사회윤리는 루터적 ‘두 왕국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정치윤리의 오용을 답습하였다. 루터의 두 왕국론은 루터교회로 하여금 제3세계의 국가들 안에서 정치적 상황이나 자유를 위한 혁명적 운동들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었다.³²⁾ 히틀러의 국가권력의 악용이나 국가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종교(the political religion of National Socialism)에 대하여 종교적이고 정치적 저항을 할 아무런 근거도 제공할 수 없었다.³³⁾ 더 나아가 정치가들과 정부가 루터의 두 왕국론에 기초하여 일체의 ‘정치적 설교’를 금하도

32) Bernhard Lohse, *Martin Luther :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Edinburgh: T&T. Clark, 1986), pp.186-87. 이형기 역, 『루터신학입문』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254면.

33) Ju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 Trans. and with an introduction by M. Douglas Meek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p75.

록 강요하였고, 독재국들인 필리핀,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지에서는 교회를 상대로 그들 고유의 두 왕국론을 적용하여 비국교도적 양상을 띠면, 곧 교회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였다.³⁴⁾ 이러한 루터의 두왕국론에 나타난 보수적 사회윤리 혹은 정치윤리는 한국에 있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수적 성향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의해 실천되었다. 이들은 루터의 두왕국론에 왜곡된 형태의 정교분리주의를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역사와 사회에 무관한 타계적인 것으로 설교하였고, 부도덕한 세속권세에 묵종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본 장에서 먼저 루터의 두왕국론의 내용과 그 윤리적 원칙을 살피고, 두왕국론에 나타나는 윤리적 위험성이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1. 루터의 두왕국론과 그 윤리적 원칙

몰트만은 루터의 두 왕국론을 “이중적 두 왕국론”(The Dual Doctrine of the Two Kingdoms)으로 표현한다.³⁵⁾ 그에 의하면, 루터의 ‘두 왕국론’은 첫째로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의 특징을 지닌다. 루터는 그의 초기 저작에서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과 악마의 도성(Civitas Diaboli)과의 투쟁과 갈등의 관계를 보여주는 묵시문학적 종말론의 성격을 지닌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둘째로 ‘두 정부론’이다. 루터는 1523년 『세속권세에 관하여』에서 하나님은 악마의 세력의 제한과 와해를 위해 하나님의 두 통치 질서, 즉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영적정부)과 삶을 보존하는 세상왕국(세속정부)인 “두 정부”를 세우셨다.³⁶⁾ 그는 기본적으로 이 저작에서 영적정부와 세속정부를 하나님의 두

34) 위의 책, p.63.

35) 위의 책, p.64.

통치질서로 이해한다. 그리고 영적정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은혜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며, 기독교인의 의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파악한다. 또한 세속정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한 방법으로 악을 억제하고 세상의 의를 이루는 도구로 파악한다. 그리고 루터는 이 두정부의 관계는 차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성과 상호의존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한다. 결국 루터는 이 작품에서 교회와 국가의 출처가 하나님이며 근본적으로 두정부는 구분되지만 악마의 왕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통치질서로 이해한다.

루터에 의하면, 이러한 두왕국에 사는 기독교인의 위치는 윤리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파악된다. 그는 로마 가톨릭과 열광주의자들과 달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현세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지만 행위규범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현세에서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 속에서 루터는 기독교인의 윤리를 개인윤리와 공적윤리로 나누고, 개인윤리 차원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용서, 인내, 희생을 요구하고, 공적윤리 차원에서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이웃을 위해 악을 반대하고 벌하기 위해 힘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루터는 기독교인이 적극적으로 직업윤리 차원에서 공직을 담당하여 이를 수행할 것을 말하고, 검을 사용하여 의로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저항권 문제에 있어서 루터는 국가의 권세가 배교를 강요하지 않는 한, 로마서 13장과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입각하여 국가권력에 복종할 것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세속 정부의 모든 권위는 부모의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36) M. Luther, 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American Edition of Luther's Works, Vol. 45*(Philadelphia and Louis, 1955-1968), p.91.

것과 같이 정부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정부의 권위를 존중하여야 한다.³⁷⁾ 그러나 만약 정부당국이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하여 그들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 교회와 기독교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즉 기독교인에게 국가에 대한 저항권이 있는가? 루터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군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1526)』에서 불의한 정부일지라도 복종할 것을 말한다.³⁸⁾ 왜냐하면 비록 어떤 정부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또 불의를 보호할지라도 그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주신 정부로서의 성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하나의 예외가 있다. “일시적인 권력과 당국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계명들에 위배되도록 행하기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행하기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거기서는 순종은 끝이며 의무도 무효화된다.”³⁹⁾ 결국 루터에게 있어서 다만 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가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게 할 때만 인정되었다. 결국 루터의 정치사상은 주어진 현실서를 긍정하는 보수적 정치신학의 양상을 띠게 된다.

2. 두왕국론의 윤리적 오용의 위험성과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답습

루터의 두 왕국론은 툴리케(H. Thielicke)에 의하면, 세 가지 오용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중윤리의 위험성, 세속화의 위험성, 세속권세에 대한 묵종주의의 경향성이 그것이다. 이중윤리(double morality)의 위험성은 윤리를 개인적 윤리와 공적윤리로 구분함으로써 나타나는 위험성을 말한다.⁴⁰⁾ 루터에 의하면 내적인 사람으로서의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왕

37) LW, Vol 13, p.58.

38) Hugh. Kerr, *A Compend of Luther's Theolog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p.230. 김영한 편역, 『루터신학개요』(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국, 1991), 27면.

39) 위의 책, 297면.

국 안에서 신적인 선의 성취를 위하여 행동하는데 비해, 외적인간으로서 세속왕국에서는 그의 공직을 따라 힘과 권력의 윤리를 추구하는 세속적 윤리를 따라 행동한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인 인간의 심성에서는 산상설교가 실현될 수 있지만, 직능의 수행에 있어서는 힘의 사용과 같은 다른 종류의 윤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⁴¹⁾ 그 결과 신앙과 행위는 분리되고 기독교인은 두가지 모순된 규범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세속화의 위험성이다. 이 세속화의 위험성은 삶의 다양한 영역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는데서 오는 위험성이다. 이것은 경제적 영역을 통째로 무자비한 경제제도나 전제주의적 통치에게 넘겨주며, 교육을 포기하고 실용주의자나 인본주의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⁴²⁾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왕국과는 무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에만 관계 되는 것이 되고, 세상은 세속적 법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것으로 이해 되므로 세상은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며 더 이상 복음에 복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⁴³⁾ 이것은 결국 세계에 절대적인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세속권세에 대한 묵종주의 경향성이다. 톨리케에 의하면 두 왕국론은 상호배타적인 두 개의 원리규범을 동시에 제시한다. 개인적인 기독교인에게는 산상수훈에 입각한 철저한 윤리적 표준을 요구하였으나 사회 속에서는 타협된 표준을 요구하였다. 그는 기존 질서와 구조의 변화보다는 지속을 저항보다는 복종을 강조하였다. 루터는 통치자에 대한 모든 징벌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직접 보복에 나서지 말

40) Helmut Thielicke, *Theological Ethics*, Vol. I, ed. by William H. Lazaet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364-365면.

41) 나훔진, 앞의 글, 192면.

42) Hulmut Thielicke, 위의 책, 367.

43) Heinrich Bornkam, *Luther's Word of Thought*, tr. by. M. h. Bertram (Saint Louse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8), p.272.

라고 한다. 이러한 루터의 주장은 사회 구조악에 대해 기독교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화 시키거나 무관심을 초래 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친정부적 사회참여는 루터적 ‘두 왕국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용의 위험성을 답습하였다. 우리는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친정부적 사회참여에서 불의한 세속권세에 묵종하는 루터적 두 왕국론의 오용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정치신학적 전통에서 이탈한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 개신교회들은 그동안 루터의 ‘두 왕국론’의 왜곡된 해석이라 할 수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섬으로써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에서 이탈하였다. 이러한 정치윤리에서의 탈세상화의 경향은 정치적 영역을 세상정권 담당자에게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영역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⁴⁴⁾

해방이후 정교분리를 내세우면서도 보수적 근본주의자들의 정치화는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60년대 이후 군사정권에 대한 묵시적 내지 열성적 동조로 나타났다.⁴⁵⁾ 60년대 말에는 박정희 정권이 영구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하자, 진보진영은 김재준 목사를 위원장으로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3선개헌 저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러나 ‘대한기독교연합회’(DCC)에 속한 박형룡, 조용기, 김준곤, 김장환 등 보수계열의 목사 242명은 김재준 목사를 “성도들의 양심을 혼란 시키는 선동자”라고 비난하고, “정교분리”를 표방하며 개헌문제에 대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 “개헌문제에 대한 박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한다”고 개헌지지를 표방하며 ‘정교분리’에 위배되는 ‘친정부적 입장’을 드러냈다. 70년에 민청학련 사건과 김종필

44) 손규태, <종교신학과 정치신학의 갈등과 접맥>, 『한국종교와 한국신학』(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3), 192면.

45) 같은 책, 193면.

총리의 교회의 정치참여에 관한 개신교내의 논쟁이 뜨거웠을 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교회의 사회참여 입장을 분명히 하자, 보수교단 연합체인 한국예수교협의회(KCCC)는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지 않는 한,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고 비난하였으며, 대한기독교협의회(DCC) 또한 성명을 통해 로마서 13장에 기록된 국가관의 명령은 무조건적이며 예수와 바울도 로마 정부에 대항 한 적이 없기에 반 정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곧 공산 침략자들에 대한 이적 행위라고 단언하였다.

한편 80년대에도 광주민주화운동이후 보수진영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해 전두환 정권을 광주시민을 보호한 용사로 미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특히 87년 교회의 사회참여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도 대부분의 교단과 보수적 지도자들은 불의한 정치권력에 침묵하거나 은밀히 협조하였다. 4.13 호헌조치 시에는 한국기독교보수교단 협의회의 이름으로 이를 지지하였고, 권력의 편에 서서 민주화 운동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붙이는 모습을 연출했다.

독일 루터교회가 제 3제국치하에서 경험했던 나치즘에 대한 침묵과 묵종이 유신체제와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에 다수의 보수적 교회와 교단, 그리고 교계지도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친정부적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정교분리’를 그 신학적 기반으로 하고, 사회윤리적으로는 루터적 두 왕국론의 오용인 이중윤리의 위험성, 세속화의 위험성, 세속권세에 대한 묵종주의 경향성을 띠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I. 나가는 말

교회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또는 국가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신약성서를 비롯하여 초대 교회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는 교회사 전통 속에서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더불어 신학적으로 끊임없이 논의되어온 문제이다. 특별히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좁은 의미로 교회의 사회참여문제는 1961년 W.C.C(뉴델리)와 1962년 로마 가톨릭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여 1968년 W.C.C 읍살라 총회와 같은 해 로마 가톨릭의 중남미의 주교회의였던 메델린(Medelin)회의에서 교회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첨예화 된 문제이다.

그리하여 한국개신교회에서도 이러한 세계 기독교회의 영향으로 1970년대 이후, 교회의 사회참여는 사회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젊은 기독교 청년 대학생들과 신학생, 그리고 N.C.C를 중심한 일부 기독교 지식인, 신학자, 목회자들에 의하여 그 열기가 분출되었고, 신학적으로는 극단적으로 민중신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개신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기간중 교회의 사회참여보다 개교회의 성장에만 몰두하였고, 기독교의 본질을 복음전도와 더불어 사회참여의 역동적 관계로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보수적 성향의 교회 지도자들은 왜곡된 형태의 정교분리주의를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역사와 사회에 무관한 타계적인 것으로 설교하였고, 부도덕한 세속 권세에 묵종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교회 특히 개신교회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루터의 두 왕국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정치윤리의 오용을 답습하게 되었다. 즉 루터의 두 왕국론에 나타난 이중윤리의 위험

성, 세속화의 위험성, 세속권세에 대한 묵종주의 경향성 등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필자가 보기에 현재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신뢰도의 상실과 이로 인한 교회 성장의 정체 혹은 둔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한국개신교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활성화이다. 여기에서 에큐메니칼 차원의 일치와 연합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대교회가 일곱 에큐메니칼 협의회를 개척하여 로마제국의 교회를 하나의 정통신앙위에 기초시킨 것처럼,⁴⁶⁾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기총, 복음주의협의회 등 한국개신교의 모두 교파와 교단과 그 대표들이 참여하는 연합과 일치로서의 에큐메니칼이다.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하여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일치된 대사회적 목소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한국교회는 정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올바른 정치신학이 요청된다. 정치신학이란 교회나 신학이 정치나 권력기관의 시녀가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가 정치화 되거나 신학이 어용화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신학은 교회와 신자의 정치적 의식을 일깨우는 신학이다. 정치신학은 기독교인의 양심에 근거하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와 불행과 부조리의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을 겪고 거기에 대항해서 투쟁하는 기독교인의 신학적 반성이다⁴⁷⁾. 그러므로 올바른 정치신학을 위해서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사회, 정치윤리에 대한 각 교파별 신학자들 간의 신학적 협의를 통한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46) 이형기, 『세계교회의 분열과 일치추구의 역사』(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74면.

47) 김영한, <한국의 정치문화와 개혁신앙>, 김영한, 『한국의 정치문화와 기독교』, (서울: 한국개혁신학회, 2002), 10면.

셋째로,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사회, 정치윤리를 협의할 때,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루터교의 두 왕국론은 역사상 많은 오용을 가져왔다. 한국교회에 있어서도 이러한 오용이 교회지도자들과 정치지도자들에 의하여 이용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하나님 주권론은 삶의 총체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개혁교회 신학의 반성은 단지 종교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적 영역, 사회적 문화적 영역도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개혁교회는 교회나 국가의 영역에서 야기되는 제도나 기구의 절대화, 우상숭배에 대해 십자가 신학적 비판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참여의 신학적 근거로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고자 하는 개혁교회 전통의 사회윤리, 혹은 정치윤리의 보다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명혁 외 3인. 『현대교회와 국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 고범서, 『교회와 국가』. 서울: 범화사, 1984.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 기독교 사회참여운동관련 문헌 해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
- 박정신. 『한국기독교사 인식』. 서울: 혜안, 2004.
- 박용규. 『한국교회를 일깨운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1998.
- 박형룡. 『박형룡박사저작전집』 제9.13권.14권,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 서영일. 『교회와 국가』. 서울: 1984.
- 이형기, 『세계교회의 분열과 일치와 추구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4.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7.
-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편. 『교회와 국가』. 서울: 도서출판엠마오, 1988.
- 김의환.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문제>, 『신학지남』, 1973. 3.
- 김용복. <해방 후 교회와 국가>, 『국가권력과 기독교』. 서울: 민중사, 1982.
- 나학진. <정교분리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교회와 국가』.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1988.
- 노길명. <개화기 및 일제시대 한국천주교회의 성격과 사회활동>, 『교회와 역사』, 1987.8
- 손규태. <종교신학과 정치신학의 갈등과 접목>, 『한국종교와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양현혜. <한경직 목사의 신앙적 유산과 그 현대적 의미>, 제 10회 한경직기념 강좌. 미간행 논문, 숭실대학교, 2006.
- _____, <한국기독교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12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 김명배(1996), 루터의 두 왕국론,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혁.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적 고찰>, 『교회와 국가』.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1988.
- 김상우(1992), 한국개신교에 있어서의 반공이데올로기 형성과 변화,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한. <한국의 정치문화와 개혁신앙>, 김영한 『한국의 정치문화와 기독교』
서울: 한국개혁신학회, 2002.
- 커어. 휴 편. 김영한 편 역. 『루터신학개요』.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91.
- 딜렌버거. 존 편. 이형기 역. 『루터저작선』.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4.
- 로제. 베른하르트. 이형기 역. 『루터신학입문』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54.
- 미야타 미쓰오. 양현혜 역. 『국가와 종교』. 서울: 삼인, 2004.
- 몰트만. 조성노 역. 『정치신학, 정치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 Loshe, Bernhard. *Martin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Edinburgh: T&T. Clark, 1986.
- Bornkam, Heinrich. *Luther's Word of Thought*, tr. by. M. h. Bertram. Saint
Louse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8.
- Thielicke, Helmut. *Theological Ethics*. Vol. 1, ed by William H. Lazaeth.
Philidelphia: Fortress Press, 1966.
- Dillenberger, John.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John Dillenberger. NewYork: Doubleday &
Company, 1961.
- Moltman, Jurgen.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 Trans,
by M. Douglas Meek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Luther, M. *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 LW,
Vol 13.

논문투고일: 2007.10.30

심사개시일: 2007.11.06

심사완료일: 2007.11.08